

한국바둑의 미래, 신민준 · 신진서를 주목하라

언젠가부터 우리는 중국바둑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세돌이 주춤하는 사이 구리 쿵지에가 세계챔프 굳히기에 들어갔고, 지난해와 올 초엔 그들보다 대여섯 살 아래 세대인 박문요와 장웨이지에가 앞 다투어 세계챔프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래에 들어선 듣도 보도 못한 신진세력까지 가세하고 있다. 탄샤오 당이페이 스위어로 대표되는 90후 세대에 이어 요즘엔 판팅위 미위팅 양딩신 등 95후 세대들

이 무더기로 덩비며 한국바둑에 거센 도전장을 내고 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말 ‘황소삼총사’의 일원인 원성진이 삼성화재배를 품으며 늦깎이로 첫 월계관을 썼고 중고신인쯤 되는 백홍석도 얼마 전 비씨카드배에서 우승의 한을 풀었으니 외형적으로는 중국에 밀렸다고 보긴 어렵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무서운 속도로 커나가고 있는 박정환까지 있으니 이 정도면 가히 중국으로 향했던 물꼬를 다시 한국 쪽으로 돌려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바둑엔 걱정거리가 있다. 중국의 90후 세대, 95후 세대에 대항할 만한 신진그룹이 한국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삼성화재배에서 반짝한 나현 말고는 딱히 도드라진 활약을 펼친 기사가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후자는 이동훈과 변상일을 미래의 기대주로 꼽기도 하지만 이들은 입단 1, 2년 차에 불과한 새내기로 아직 본격 무대를 밟아 보지도 못한 상태다.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동훈과 변상일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을 뭘까? 입단 적체시절 어린 나이에 형들을 제치고 입단한 신동들이기 때문이다. 입단 적체가 심화된 요즘 입단 연령은 17, 18세를 넘기기 일쑤인데, 이동훈과 변상일은 13, 15세에 입단해 일류기사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조기입단이 초일류기사의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창호 이세돌 조한승 최철한 박정환을 보면 하나같이 초일류기사로 성장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7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1년 전부터 한국기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1회 영재입단대회가 열린 것이다. 바둑 영재의 조기발굴을 목적으로 대회가



만들어졌고 17일 그 첫 영재입단자 2명이 가려졌다. 입단자는 진작부터 '바둑 신동'으로 유명세를 탔던 신민준(13·충암중1·사진 왼쪽)과 신진서(12·충암초6). 두 신동은 기대에 부응하듯 발군의 기량으로 영재입단의 관문을 뚫고 프로입단의 면장을 부여잡았다.

부산의 '괴동' 신진서와 천하의 싸움꾼 신민준

이번 영재입단자 신진서와 신민준은 과거에 이세돌 박정환이 그랬듯 '바둑 신동'으로 불리며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었다. 먼저 두각을 나타낸 쪽은 신진서. 부산 태생의 신진서는 바둑전문 도장을 노크하기 전인 2010년 정현산배를 시작으로 대한생명배 어린이국수전, 조남철국수배, 전국체전을 차례로 석권하며 4관왕을 거머쥔 괴동이다. 보통 전국 규모의 어린이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선 전문도장에서 집중적으로 바둑을 배우지 않고서는 힘든 게 그동안 바둑계의 관행처럼 돼버린 풍토인데, 부산의 괴동 신진서가 그것을 깬 것이다. 당시 신진서의 나이는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 5, 6학년의 형과 누나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것이어서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신진서가 야전에서 단련됐다면 신민준은 일찍부터 제도권에서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운 케이스다. 바둑을 배운지 1년도 안 돼 바둑 명문 양천대일도장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수업을 시작한 신민준은 2년 전 입단한 국내 최연소기사 이동훈과 한 살 터울로 도장 내에서 영재로 통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생을 일찍 시작해 어린이대회 입상 경력이 줄곧 없다가 지난해 열렸던 대한생명배 어린이국수전과 조남철국수배를 거푸 석권해 역시 신민준이라는 찬사와 함께 실

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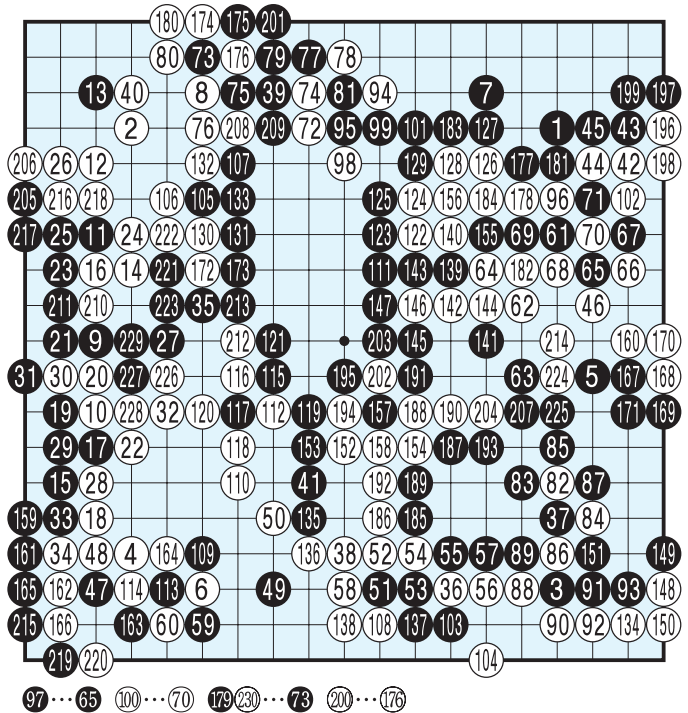
화려한 입상경력이 말해주듯 두 소년의 재능과 흡수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양천대일도장에서 신민준의 지도사범을 줄곧 맡아온 옥득진 7단은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여느 아이들과 다른 몇 가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첫 번째가 출중한 실력이다. 7살 또래치고 바둑 실력이 출중했다고 한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천재를 운운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두 번째는 영재의 끼다. 바둑의 몰입도가 도저히 7살 꼬마라고 믿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 바둑판 앞에 몇 분도 못 앉아있는데, 7살 꼬마 신민준은 무려 몇 시간 동안 꿈쩍도 않고 바둑판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바둑에 대한 흥미와 몰입을 반영한 것이어서 아이들의 성장속

제1회 영재입단대회 신민준 입단결정국

○ 신민준 ● 이어덕등

(2012. 7. 17. 한국기원. 제한시간 각 1시간, 30초 3회, 덤 6집반, 230수 끝, 백 불계승)



도와도 맞물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민준의 집중력과 흡수력은 타고 났다 할 만큼 최고였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신민준을 ‘바둑 신동’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다. 신동으로 분류되는 영재 천재들에는 “번뜩이는 재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발상의 자유로움인데, 그런 점에서 민준이는 두 가지 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평이다. 입단 초기 애늬은이 소리를 들었던 이창호와 흡사한 부분이다.

신민준의 트레이드마크는 폭풍 공격력이다. 곱상한 외모와는 다르게 매판 강한 수읽기 실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은 가히 폭풍 송태곤, 이세돌을 연상시킨다. 이번 영재 입단대회에서도 그의 가공할 공격력 앞에 여러

유망주들이 나가 떨어졌을 정도니까. 강한 공격력을 더욱 갈고닦는다면 과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유창혁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신진서의 재능도 신민준 못지않다. 신진서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이는 아버지 신상용 씨(49)다. 부산 사상구 구례동에서 바둑교실을 하고 있던 신상용 씨는 아들 진서에게 5살 때 바둑을 처음 가르쳤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기사로서의 꿈을 키워주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처음엔 프로기사로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가길 바라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재능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계기는?) 진서가 유치원에 다닐 때 부산시장배 저학년부에 출전시켰는데, 놀랍게도 덜컥 우승을 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스승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김해에 사는 권병섭 씨가 주말이면 부산까지 찾아와 지도해 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김항 원장을 비롯해 정경수 씨, 부산 지역 연구생을 가르치고 있는 장명한 五단을 비롯해 이기섭 七단, 김종준 六단, 김준영 五단 등 부산 터줏대감 사범들, 서울의 장수영 九단도 신진서와 짧게나마 인연을 맺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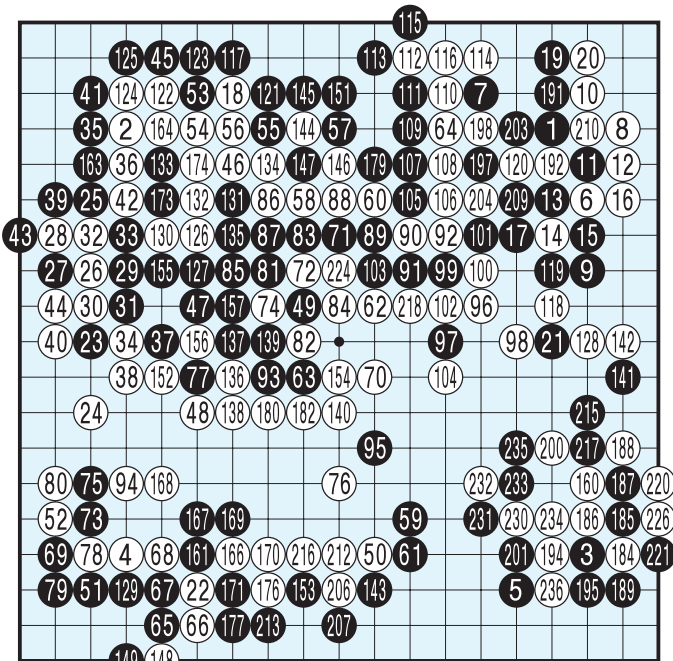
기량이 일취월장한 신진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0년 어린이 대회를 평정한 이후 다시는 어린이 대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더 이상 어린이대회에 나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아버지 신씨의 결정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바둑계는 부산 신동의 잠적! 바둑을

제1회 영재입단대회 신진서 입단결정국

○ 신진서 ● 신민준

(2012. 7. 16. 한국기원. 제한시간 각 1시간, 30초 3회, 덤 6집반, 236수 끝, 백 불계승)



150 162 172 178 190 196 202 208 214 222 ... 144 158 ... 49
 159 165 175 183 193 199 205 211 219 225 ... 147 181 ... 133 223 ... 77 227 ... 173
 228 ... 184 229 ... 185



그만 둔 것인가? 의문을 달고 있을 즈음 신진서는 클럽A7의 홍시범 사장과 인연을 맺게 된다. 홍시범 사장은 아마추어 바둑모임인 아바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 아바사의 주말 교류전 대국에 부산 신동 신진서를 가끔씩 초대하는 것이 인연이 되었다.

“클럽A7의 홍시범 사장의 주선으로 아바사 회원과의 주말교류전에 나갈 수 있었다. 진서에겐 행운이었죠.” 아바사 회원들은 아마추어 강자들이 즐비한 모임으로 자체 주말교류전을 하는데 이 강자들과 바둑을 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재입단대회가 임박한 올 3월 신상용 씨는 중대결정을 한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 집을 여러 차례 옮겼듯 신상용 씨도 부산 생활을 접고 서울로 무작정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아들 진서의 입단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다. 그 길로 찾아가는 곳은 충암바둑도장.

신진서를 처음 본 한종진 八단은 처음 신진서를 보고 “세면 얼마나 세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 약간 산만한 느낌도 받았고, 그런데 신진서의 바둑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썩기에? “초등학생 바둑이라고

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바둑이 썩었다. 초반, 중반, 끝내기, 사활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 입단해도 충분할 정도의 실력이었다. 이번 영재입단대회를 앞두고 5개월여 동안 지켜본 신진서는 더욱 대단하다. (뽀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느는 속도가 무뎌지기 마련인데 진서에게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금도 느는 게 보일 정도다. 한마디로 괴물이다.”

괴물(?)이란 말에 “이제 입단했으니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으나?”라는 성급한 질문을 스승 한종진 八단에게 던졌다. “이런 속도로 는다면 몇 년 안에 또 한명의 새로운 타이틀 홀더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애제자 신진서를 추켜세웠다.

타고난 재능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초일류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프로무대에 첫 발을 담근 신민준 신진서가 재주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듯이 입단 이후에도 초심을 영원히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바둑계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두 사람의 이름을 만방에 떨칠 것을. <취재/구기호 편집장>